

푸 른 하 늘 을 제 압 하 는

세력이나 기세 따위는 억눌러서 통제함

노 고 지 리 가 자 유 로 뒀 다 고

종다랗기의 시

부 러 워 하 던

어 느 시 인 의 말 은 수 정 되 어 야 한 다 .

자 유 를 위 해 서

비 상 하 여 본 일 이 있 는

사 람 이 면 알 지

노 고 지 리 가

무 엇 을 보 고

노 래 하 는 가 를

어 켜 서 자 유 에 는

피 의 범 새 가 섞 여 있 는 가 를

혁 명 은

왜 고 독 한 것 인 가 를



혁 명 은

왜 고 독 해 야 하 는 것 인 가 를

"have to"

김 수 영 , 「 푸 른 하 늘 을 」

20 21 . 04 . 18

→ '모순 형성의 아이러니'가 내가 시를 읽으면서 '신선하다, 영광을 받는다'는 느낌을 받게 한 요소이다.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감춰진 전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묵묵하고 남은 기쁨이기도 하다.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^{세련되게} 단정하게 읽히기 때문에 미처 못했던 선명하게 기억된 시이다. 혁명은 고독해야 하면서도 그 앞을 독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구원의 아이러니인 것 같기도 하다.